금용당 일섭 스님 삶·예술 담은 전집 출간

9월 7일 역사기념관서 출판기념회
불화·초본 등 일섭 스님 예술 망라
250여 사찰 등 10년 조사로 '결실'
6대 280여 일섭 문도 계보 조명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 근현대 불교미술의 새로운 지평을 연 금용당 일섭 스님(金蓉堂 日燮, 1900~1975)의 삶과 예술세계를 총망라한 전집이 출간됐다.

조계총림 송광사(주지 무자 스님)는 9월 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한국 근현대 불교미술의 비수갈마: 금용 일섭〉 전 6권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일섭 스님은 불상과 불화, 단청을 두루 섭렵한 근현대 한국 불교미술의 대표적인 불모(佛母)다.

1935년 김제 금산사 미륵불 조성 경쟁을 통해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은 뒤 독자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했으며, 1938년에는 한국불교의 상징인 태고사(현 조계사)의 단청과 후불탱화 제작을 맡는 등 불교미술계의 중요 인물로 이름을 알렸다. 이후 불화뿐 아니라 불상 조성과 개금, 단청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활동을 펼쳤으며, 1972년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으로 지정됐다.

일섭 스님의 예술 활동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기록과 전통 불교미술을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한 교육과 전승 활동이다. 일제강점기 전통문화가 위축되던 시기에는 김제 부용사에 '불상불화전문연구성예원'을 설립해 전문적인 화원을 양성했다. 성예원을 통해 이어진 그의 예술적 전통은 현재까지 5대에 걸쳐 280여 명의 문도로 이어지고 있다.

일섭 스님의 삶과 예술이 전집으로 복원될 수 있던 것은 스님이 직접 남긴 〈연보(年譜)〉가 있어서 가능했다. 일섭 스님의 〈연보〉에는 탄생부터 생애와 불교미술 활동에 이르기까지 스님의 삶과 작품에 관한 기록이 담겨 있으며 단청·불상·탱화 등 다양한 불사와 작품 활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조계총림 송광사는 9월 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한국 근현대 불교미술의 비수갈마: 금용 일섭'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내외빈들의 기념촬영 모습.

송광사는 "불모가 자신의 삶과 창작 과정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화원 등을 직접 기록하고 정리했다는 점에서 〈연보〉는 단순한 개인 기록을 넘어선다"면서 "이는 근현대 예술가의 삶과 창작 현장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자 한국 근현대 불교미술에 대한 위대한 기록유산"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전집은 2014년 김제 부용사 지관 스님이 일섭 스님의 유품을 송광사성보박물관에 기탁하며 시작됐다. 이를 계기로 〈연보〉를 비롯한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전국 각지에 흩어진 일섭 스님의 작품을 추적·조사하는 작업이 본격화됐다.

특히 송광사성보박물관장 고경 스님의 원력과 총괄 아래 10여 년에 걸친 조사와 연구가 진행됐다. 연구진은 〈연보〉에 기록된 작품을 단서로 사찰과 소장처를 직접 찾아가 작품의 현존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와 증언을 수집하는 과정을 거쳐 전집을 완성했다. 그 결과 250여 곳의 사찰·서원 등을 다니며 95건 2607점의 불상과 383점의 불화를 비롯해 수백 점의 불화 초본과 단청, 관련 자료를 집대성할 수 있었다.

전집은 불교미술사 분야의 전문가인 신은영 송광사성보박물관 학예사와 송은석 동국대 WISE캠퍼스 교수가 공동 편저했다. 전집은 친필 〈연보〉의 석문과 번역을 비롯해 작품 조사, 인물과 사찰에 대한 주석, 화승과 문도 계보 정리, 연보와 불화 속 승려 계보 등을 진행해 자료의 학술적 가치를 높였다.

전집은 일섭 스님의 생애와 예술관을 보여주는 〈연보〉를 비롯해 불상·불화·불화 초본·단청과 관련 자료까지 총 6권으로 구성됐다.

제1권은 일섭 스님이 직접 남긴 친필 〈연보〉의 석문과 번역을 중심으로 생애와 예술관, 동료 및 제자들과의 활동을 담았다. 제2권에서는 화승 계보와 연보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찰, 280여 문도로 이어지는 계보 등을 정리해 일섭 스님의 활동이 어떤 관계 속에서 이뤄졌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색인을 정리하여 번역과 원본에서 찾아보기 쉽게 했다.

제3권과 제4권은 각각 불상과 불화를 중심으로 현존 작품과 새롭게 확인된 작품을 수록했으며, 제5권에는 일섭 스님이 불화 제작과 후학 교육을 위해 평생 수집하고 정리한 불화 초본을 담았다. 제6권은 단청을 비롯해 수집 전적, 불교미술전과 대한불교미술협회 창립 등 일섭 스님의 사회적 활동과 교습 관련 자료를 수록했다.

고경 스님은 발간사를 통해 "일섭 스님 전집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비록 10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면서 "하나의 씨앗에 불과한 일섭 스님 전집을 한국 불교미술의 발전을 위해 싹틔워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늘리고 줄이는 즐거움

⑯ 부증불감(不增不減)

不 增 不 減

〈반야심경〉은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이라고 선언한다. 모든 현상의 참모습인 공상(空相)의 자리에서는 생겨남도 소멸함도 없고, 더러움도 깨끗함도 없으며, 늘어남도 줄어듦도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이 구절을 치열한 삶과 수행을 부정하는 허무주의로 오해한다.

하지만 부증불감은 삶의 변화를 가로막는 가르침이 아니다. 오히려 고정된 실체나 정해진 운명이 없음을 밝힘으로써, 인간에게 삶을 변화시킬 가능성과 주도권을 돌려주는 대자유의 선언이다.

이러한 해석은 신라 원효 스님의 〈대승기신론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원효는 인간의 마음을 본질의 차원인 진여문(眞如門)과 현실의 차원인 생멸문(生滅門)으로 나누어 통찰했다. 진여문에서는 부처나 중생의 본성이 다르지 않으며, 더하거나 덜어낼 것이 없는 부증불감의 세계가 펼쳐진다. 반면 현실에서는 인간의 의지와 수행에 따라 삶의 모습을 끊임없이 바꾸어갈 수 있다. 원효는 무명을 닦아내는 수행을 통해 염오(染汚, 더러움)는 줄어들고 청정함은 더할 수 있다고 보았다. 부증불감은 변화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사유인 셈이다.

이 논리는 〈반야심경〉의 핵심인 오온(五蘊)과 십이처(十二處)로 이어진다. 불교에서 오온과 십이처는 인간이 세계를 경험하고 인식하는 구조를 설명하는 핵심 개념이다. 감각기관을 통해 세계를 받아들이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과 감정, 의지와 행동을 일으키는 종합이 마음이다. 인간은 이러한 마음 작용을 내면에 축적하고 외부로 표현하면서 살아간다. 그러한 삶의 양식이 모이면 우리는 그것을 '문화'라고 부른다. 〈반야심경〉의 공성(空性)은 우리의 경험과 인식, 그리고 문화 역시 고정된 실체가 아님을 일깨운다.

따라서 부증불감의 가르침은 일상에서 '자유롭게 늘리고 줄이기'라는 문화적 실천으로 이어진다. 오온과 십이처의 작용이 본래 공하기 때문에 삶을 억압하는 독소들을 과감하게 줄여갈 수 있다. 타인을 향한 혐오나 집착, 배제와 차별 같은 고통의 문화는 공의 지혜로 그 실체 없음을 알아차리고 덜어낸다. 반대로 인간성을 풍요롭게 하는 자비와 예술적 상상력, 문화적 다양성과 연대의 가능성은 끊임없이 확장해 간다.

결국 부증불감의 참뜻은 세상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삶과 문명의 방향을 스스로 만들라는 가르침이다. 우리는 정해진 숙명의 궤도를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다. 본래 증감이 없는 무한한 공의 바탕 위에서 고통은 지혜로 덜어내고 창조의 다양성은 자비로 넓혀가는 문화적 주체가 되시라. 이것이야말로 천년의 텍스트가 오늘날 우리에게 선물하는 위대한 실천 철학이다.

〈화순 불암사 주지〉

화암사 부도군, 강원도 문화유산자료 지정

강원특별자치도 9월 4일 고시
승탑 · 탑비 16기 가치 인정돼



고성 화암사 부도군〈사진〉이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자료로 지정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9월 4일 고시를 통해 "고성 화암사 승탑군 및 탑비 16기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화암사 부도군은 조선 후기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화암사와 관련된 역대 고승들의 승탑과 탑비로 구성돼 있다.

특히 1874년에 조성된 춘담 대사 승탑과 탑비를 비롯해 조선 후기 조성된 승탑 15기와 탑비 등이 남아 있어 강원 동북부 지역 불교문화와 승탑 조형양식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춘담 대사 탑비는 조선 후기 불교계 인물과 법맥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화암사 부도군에 조성된 역대 스님들의 승탑과 탑비는 단순한 묘역 유적을 넘어 조선 후기 강원지역 불교계의 법맥과 사찰사를 보여주는 자료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면서 "탑비에 남겨진 기록은 화암사와 관련된 고승들의 행적과 불교계 인물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지정 이유를 밝혔다.

이동격 강원지사장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기도와 수행, 복지와 문화공동체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본사 선운사
사부대중 일동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
☎ 063)561-1422 http://www.seonunsa.org

봉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스님 축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불자지도자 네크워크
불교 리더스 포럼
상임고문 김동건
고 문 김의정 김희옥 이인정 이윤희 이태영
상임지도위원 김진태
지도위원 고유환 김기유 김춘순 박영기 부석종 양희구 윤현우 윤성이 이광재 장인화 전충렬 정병국 조용철 조현재 최 윤 최현국
자문역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종단·청불회 소통자문)
상임대표 이기흥 제40,41대 대한체육회장, 전IOC위원
상임부대표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청와대불자회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불자회 부회장
법조대표 이귀남 제61대 법무부장관
경제2 대표 김성섭 전 중소벤쳐기업부 차관
공공대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장관
언론대표 이용식 관훈클럽정신영기금 이사장
보건의료대표 김우호 전 인사혁신처장
체육대표 정강선 전라북도체육회장
남북대표 김형석 전 통일부차관
교육대표 윤재웅 동국대학교 총장
직능단체대표 이연화 (주)천마관광 대표
총재특보 신상국 (주)아가방컴퍼니 부회장
감 사 이정하 하나손해보험 상임감사
국회정각회 이헌승 국회의원, 국회정각회장
경제1 대표 육현표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
경제3 대표 이혁렬 에스폴리텍 대표이사
사회안전인권 대표 김창룡 주 캄보디아대한민국 대사
문화예술대표 김정배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금융대표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군 대 표 구홍모 전 육군참모차장
환경대표 정연만 전 환경부차관
대외협력 대표 선상신 아시아투데이 부회장
총재특보 윤재연 블루원 대표
총재특보 김종필 내일신문 편집국장이사
감 사 김정만 법무법인 지행인 대표변호사